

## 프랑스, EPR2 6기 건설 재확인 및 금융지원 확정...2026년 말 최종 투자 결정 목표

해당국가	프랑스	기관(기업)	프랑스 행정책임위원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플랜트
------	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

### □ 프랑스는 제5차 행정책임위원회(CPN)에서 차세대 원전 EPR2(Evolutionary Power Reactor 2) 6기 건설을 공식화하고 세부 비용 목표 준수와 핵심 권고 이행 확정

- 마크롱 대통령 주재 제5차 CPN에서 국가 원자력 산업 부흥과 차세대 원전 EPR2 건설 프로그램의 본격 추진 방침 공식 재확인
  - 에너지 주권 확보와 접근성 강화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원자력 산업 전면 재확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국가적 당위성 공식 표명
  - Penly·Gravelines·Bugey 등 3대 핵심 부지에 차세대 EPR2 6기를 신규 건설하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을 정밀 점검
-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투명하고 엄격한 재무 통제 기반의 세부 비용 목표 준수와 관계 기관 핵심 권고사항 전면 이행
  - 신원자력부처간대표단(DINN)의 2026년 초 감사 결과를 수용해 프랑스전력공사(EDF)가 728억 유로 예산·공정 준수를 약속
  - CPN은 EDF에 도출된 세부 권고사항을 2026년 말까지 완수하고 DINN의 체계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최종 보고하도록 규정

### □ 국가 금융 지원 및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원칙을 확정하고 2026년 말 이전 최종 투자 결정(FID) 성공적 달성 본격화

- 차세대 원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재무 조달 지원과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의 세부 운영 원칙을 최종 확립
  - CPN 주도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차세대 EPR2 사업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재무 구조와 규제 프레임워크 세부 지표 확정
  - 총사업비의 60%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 저리 대출을 프랑스 국책 금융 기관인 예금 공탁 금고의 저축 기금 재원으로 전액 조달
- 대규모 원전 인프라 사업의 적기 착공을 담보하고자 2026년 말 이전에 공식적으로 최종 투자 결정을 최우선 핵심 목표로 명문화
  - EDF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 결정 기한을 2026년 말로 확정하고, 2038년 1호기 최초 상업 가동을 목표로 국가 역량 결집
  - 총 6기의 차세대 EPR2 원전을 Penly·Gravelines·Bugey 핵심 부지 순으로 단계적 건설을 추진하며 2027년 공식 착공 돌입

※ 출처 : 프랑스 행정책임위원회(2026.03.12), French ministerial council reiterates need for nuclear revival